

티끌 모아 태산

속담의 뜻

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모이고 모이면 나중에 큰 것이 된다.

손담 들어가는 대화

가: 지갑에 무슨 카드가 그렇게 많아?

나: 아, 이거? 포인트 카드야. 물건을 사면 포인트를 적립해 주거든.

가: 얼마 안 되는 포인트 가지고 뭘 하겠다고?

나: 모르는 소리 하지 마. **티끌 모아 태산**이라고 내 친구는 포인트를 모아 가방을 샀어.

(Kaynak: 관용어와 속담으로 배우는 한국어 204)

세월이 약

속담의 뜻

아무리 괴롭거나 슬픈 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게 된다.

손담 들어가는 대화

가: 수지 씨가 지난주에 남자 친구와 헤어졌대요.

나: 저런, 오래 사귀었다고 들었는데 많이 힘들어 하겠군요.

가: 그래서 그런지 밥도 안 먹고 외출도 안 하고 집에만 있대요.

나: **세월이 약**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요.

(Kaynak: 관용어와 속담으로 배우는 한국어 259)

하늘의 별 따기

속담의 뜻

무엇을 얻거나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다.

손담 들어가는 대화

가: 내가 아는 사람이 복권에 당첨돼서 상금으로 집을 샀대요.

나: 와,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도 있군요.

가: 그래서 나도 복원 몇 장 사려고 하는데요.

나: 아니고, 사지 마세요. 복권에 당첨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. **하늘의 별 따기**예요.

(Kaynak: 관용어와 속담으로 배우는 한국어 203)